

중소기업 무역 통신문의 어법 정형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

김 선 응**
박 덕 제***

<목 차>

- | | | |
|-------------------------|-----------------|---------------|
| 0. 서론 | | |
| 1. 실태조사 | | |
| 1.1. 조사대상 기업의 성향분류 | 1.2. 무역영어 인식 실태 | |
| 2. 문법적 분석 | | |
| 2.1. 접속사 | 2.2. 조동사 | 2.3. 부사 |
| 2.4. 시제표현 | 2.5. 관사 | 2.6. 가정법과 직설법 |
| 2.7. 수동태와 능동태 | 2.8. 전치사 | |
| 2.9. 부정표현 | | |
| 3. 화용적 분석 | | |
| 3.1. 언어의 사회적인 측면 | 3.2. 격식과 문체 | |
| 3.3. 현대 영어의 조건 | 3.4. 영국영어와 미국영어 | |
| 3.5. 한국인들의 영어에 대한 오류 분석 | | |
| 3.6. 무역통신문의 화용적 문제 | | |
| 4. 결론 | | |

0. 서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준의 무역 통신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어 표현 상의 오류 및 우리말과 대조되는 어법상의 차이를 문법적(文法的)인 측면과 화용적(話用的)인 측면에서 살펴서 이들의 개선점을 무역영어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무역거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시도이다.

* 이 연구는 산학협동재단의 1992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 졌음.

** 연구책임자: 광운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 연구원: 광운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경제는 절대적으로 무역입국 수출주도 정책 하에 운용되고 있다. 무역의 증진을 통하여 국제 수지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가의 부의 성장을 이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시상과제라고 보겠다. 이에 무역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나라가 갖는 시장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상대방과 직접 테이블상의 협상을 하는 경우가 아닌 무역통신문의 왕래에 있어 영어의 어법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 하지 못하여 거래상 오해가 생기고 어렵게 추진되던 거래 자체가 실패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보겠다. 영어 표현 상의 오해로 인해 겪는 에로사항은 무역거래에 있어 우선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부분임이 당연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에로사항이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상대적으로 일천한 중소기업 수준의 무역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한다고 보고 연구의 범위를 중소기업의 무역거래에 맞춘다. 중소기업의 수출입 상품의 가격경쟁력, 품질, 생산성, 운영 등 제반 여건이 아무리 성숙하다고 해도 이를 정확히 상대방에게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애써 농사지었지만 수확을 거두지 못한 것과 같다.

통신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현 상의 오류는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볼 때 영어의 문법 및 어법 분야에서 도움을 받아 개선될 수 있으며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는 표현 상의 문법적 오류 뿐만 아니라 영어의 사회언어학적-심리언어학적 배경을 고려하지 못해 발생하는 화용적인 오류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제1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무역담당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무역영어에 대한 디헤와 인식을 조사 분석한다. 제2장에서는 무역영어 표현 상에 유의해야할 의미차이나 비문법적 표현으로 인한 오류등을 문법적 시각에서 기술한다. 제3장에서는 무역영어를 구사하는데 있어 고려하여야 할 영어의 사회학적 심리학적 특성을 화용적 측면에서 기술한다.

1. 실태조사

연구자들은 1992년 12월 중 서울상공회의소의 증명발급과에 출입하는 국내 중소기업체를 상대로 부록에 별첨한 내용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 설문문의 내용과 결과를 문항 별로 분류하여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의 무역영어에 대한 의식 및 사용 실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1.1. 조사대상기업의 성향분류

이 절에서는 설문에 응한 기업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1.1.1. 조사대상기업 관련사항

우선 설문에 응한 40여개 업체를 무역업태 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수	유효비율 (%)
갑류무역	31	77.5
갑류무역 대리점	0	0.0
을류무역	4	10.0
을류무역 대리점	0	0.0
무응답	5	12.5
합계	40	100.0

(1)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규모의 무역업무를 주로 다루는 업체는 갑류무역임을 알 수 있다.

조사기업의 규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2)

	수	유효비율 (%)
대기업	15	37.5
중견기업	5	12.5
중소기업	18	45.0
무응답	2	5.0
합계	40	100.0

(2)의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의 대상기업의 범위는 주로 중소기업이며 대기업도 상당수 설문에 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사기업의 수출입시 건당 주문량은 다음과 같았다.

(3)

	수	유효비율 (%)
1만 달러 미만	4	10.0
2만 달러 정도	17	42.5
5만 달러 정도	11	27.5
5만 달러 이상	6	15.0
무응답	2	5.0
합계	40	100.0

즉,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주로 건당 평균 2만 달러 정도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1.1.2. 주요교역대상국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주요 교역대상국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큰 비율을 점하는 나라를 조사하였다.

(4)

	수	유효비율 (%)
미국이 가장 큰 비율	14	20.0
일본이 가장 큰 비율	7	17.5
중국이 가장 큰 비율	1	2.5
EC가 가장 큰 비율	7	17.5
동남아국가가 가장 큰 비율	8	20.0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큰 비율	2	5.0
기타 지역이 가장 큰 비율	0	0.0

이상을 종합해볼 때 영어를 모국어로하는 미주지역과의 거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정확한 영어표현을 통한 오해의 여지가 없는 어의의 전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2.1. 무역영어 인식실태

2.1.1. 협상시 애로사항

무역협상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나는 설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보자.

(5)

	수	유효비율 (%)
언어의 장벽이 가장 크다.	5	12.5
언어의 장벽이 가장 큰것은 아니다	25	62.5
무응답	10	25.0
합계	40	100.0

(6)

	수	유효비율 (%)
문화와 관습의 차이가 가장 크다	10	25.0
문화와 관습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은 아니다	22	55.0
무응답	8	20.0
합계	40	100.0

(7)

	수	유효비율 (%)
까다로운 품질의 요구가 가장 큰 문제이다	20	50.0
까다로운 품질의 요구가 가장 큰 문제는 아니다	15	37.5
무응답	5	12.5
합계	40	100.0

(8)

	수	유효비율 (%)
(5 - 8)의 이유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3	7.5
(5 - 8)의 이유가 가장 크다	15	37.5
무응답	22	55.0
합계	40	100.0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무역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높은 품질의 경쟁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언어 외적 측면을 제외한다면 상대방의 문화와 관습의 차이의 이해와 이에 따른 언어 생활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보겠다.

2.1.2. 무역의 방법

조사대상 기업에게 수출입의 경로를 조사한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9)

	수	유효비율 (%)
중개상을 통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7	17.5
중개상을 통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은 아니다	20	50.0
무응답	13	32.5
합계	40	100.0

즉, 중개상을 통하는 것보다 다른 경로를 통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결과이다. 그외의 방법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10)

	수	유효비율 (%)
직접방문을 통해서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11	27.5
직접방문을 통한 무역거래가 가장 많은 것은 아니다	19	57.5
무응답	10	25.0
합계	40	100.0

(11)

	수	유효비율 (%)
무역통신문을 통해 무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12	30.0
무역통신문을 통해 무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은 아니다	15	37.5
무응답	13	32.5
합계	40	100.0

(12)

	수	유효비율 (%)
무역상사를 통해 무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6	15.0
무역상사를 통해 무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은 아니다	19	57.5
무응답	15	37.5
합계	40	100.0

(9) - (12)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무역통신문을 통하여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응답한 회사의 비율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역통신문의 정확한 작성 및 해석은 무역거래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겠다.

또한 무역영어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보았다.

(13)

	수	유효비율 (%)
전문교육기관설립	7	17.5
연구활성화	9	22.5
해외연수	13	32.5
통신문 교육	10	25.0
무응답	1	2.5
합계	40	100.0

무역영어 실무 담당자들은 무역영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해외연수를 통한 교육이 일차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실 여건상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무역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을 조사해 보자.

(14)

	수	유효비율 (%)
실무를 통한 연습을 한다	26	65.0
무역연수기관을 통한 교육을 받는다	3	7.5
공부 예정이 없다	9	22.5
공부 경험이 전혀없다	1	2.5
무응답	1	2.5
합계	40	100.0

무역실무자들은 무역영어의 교육에 대한 절실한 요구는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음으로 무역통신문이 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보았다.

(15)

	수	유효비율 (%)
영향이 아주 크다	17	42.5
영향이 있다	19	47.5
영향이 별로 없다	3	7.5
영향이 전혀 없다	0	0.0
무응답	1	2.5
합계	40	100.0

무역실무 담당자들은 무역통신문이 거래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실제로 무역통신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갖는 애로사항이 무엇때문인지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았다.

(16)

	수	유효비율 (%)
영문법지식 부족	3	7.5
표현력 부족	10	25.0
어휘력 부족	13	32.5
작문실력 부족	5	12.5
실무지식 부족	6	15.0
무응답	3	7.5
합계	40	100.0

무역통신문의 작성에 있어 필요한 것은 무역에 관한 실무지식이 아니라 영어의 표현 능력이라는 결과이다.

2.1.3. 어법 및 표현 상의 오류를 중심으로

무역통신문의 작성은 주로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17)

	수	유효비율 (%)
실무자	29	72.5
중견간부	8	20.0
임원	1	2.5
무응답	2	5.0
합계	40	100.0

즉, 간부 이상급 직원 보다는 실무자 선에서 무역통신문의 작성이 주로 이루어 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무역거래가 진행되던 중 중단이 되거나 분쟁이 일어난 경험이 있는가를 물었다.

(18)

	수	유효비율 (%)
있다	18	42.9
없다	20	47.6
무응답	2	4.8
합계	40	100.0

거래가 진행되던 중 중단된 사례가 절반 가까운 비율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서 원인 발견 후 치료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역거래 중단 혹은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해 보자.

(19)

	수	유효비율 (%)
무역계약서 작성 상의 오류	5	12.5
상거래 관습의 무지	11	27.5
영어실력 부족	1	2.5
무응답	23	57.5
합계	40	100.0

이 결과를 보면 일차적으로 상대방의 상관습을 철저히 파악해야 하는것이 우선이지만 영어통신문이나 계약서 작성 상의 오류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이 명백하다.

무역통신문 작성 상에 겪는 문제가 영어에 있다면 그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여 보았다.

(20)

	수	유효비율 (%)
문법적 오류	4	10.0
화용적 오류	28	70.0
무응답	8	20.0
합계	40	100.0

위의 표에 의하면 문법적 오류보다는 화용적오류가 더 많다. 그러나 문체 상의 차이를 문법적 오류로 본다면 문법적 오류의 비율이 올라갈 것임에 틀림없다.

문법 상 오류 중 가장 빈번한 것 순으로 기재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얻은 결과를 보자. 조사방법은 가장 빈도가 큰 것을 1점 가장 빈도가 낮은 것을 9점으로 하여 점수가 낮은 것이 빈도가 큰 것으로 생각하였다.

(21)

내 용	수	순위
접속사 사용	40	1
조동사 사용	73	2
부사의 위치	75	3
시제표현	85	4
관사 사용	93	5

가정법과 직설법	105	6
능동태와 수동태	107	7
전치사 사용	128	8
부정표현	154	9

문법 상의 오류 외에 다른 실수가 있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22)

	수	유효비율 (%)
문화적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가장 크다	12	30.0
문화적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가장 튼 것은 아니다	11	27.5
무응답	17	42.5
합계	40	100.0

(23)

	수	유효비율 (%)
미국영어와 영국영어의 차이에서 오는 오류가 가장 크다	1	2.5
미국영어와 영국영어의 차이에서 오는 오류가 가장 큰 것은 아니다	16	40.0
무응답	23	57.5
합계	40	100.0

(24)

	수	유효비율 (%)
문체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	12	30.0
문체상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은 아니다	13	32.5
무응답	23	57.5
합계	40	100.0

(25)

	수	유효비율 (%)
구어체의 의미가 문어체와 다른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7	17.5
구어체의 의미가 문어체와 다른 것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니다	16	40.0
무응답	17	42.5
합계	40	100.0

문법 외적인 문제에 대하여 무역실무 담당자들은 문화적 인식의 차이, 문체상의 문제, 구어체와 문어체의 의미차이, 미국영어와 영국영어의 차이의 순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2. 문법적 분석

본 장은 기본적인 영문법의 지식을 갖추고 무역실무에 임하는 무역실무 담당자들을 독자로 가정한다. 따라서 문법 각 분야의 채용법에 관한 종합적인 기술을 피하고 유의해야 할 내용들만 선별하여 기술하였음을 밝혀둔다. 본 장을 기술하는 데 있어, 문법의 제분야 중 제1장의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른 무역실무자들의 애로부분 순으로 기술하였다. 이를 기술하는데 있어 문용 (1988), Leech (1987), Quirk et al. (1985), Palmer (1979, 1988) 등의 연구를 크게 참고했음을 밝혀둔다.

2.1. 접속사

2.1.1. 등위 접속사

이 절에서는 and와 but의 주요 용법을 소개한다.

(1) 시간상 연속: We considered your offer and decided to make a deal with you.

(2) 결과 또는 원인: He heard an explosion and phoned the police.

(3) 대조: Robert was secretive and David was candid.

여기서 대조를 나타내는 and는 대조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but와 구별되어야 한다. ((7) 참조)

(4) Comment: They disliked John--and that is not surprising.

(5) 양보: He tried hard and he failed.

(6) 조건: Give me some money and I'll help you escape.

But는 and보다 강한 대조의 의미를 갖는다.

(7) He is poor but he is happy.

Because와 for는 모두 이유 혹은 원인을 나타내지만 for는 특히 판단의 기준을 의미한다. 또한 for는 격식체이며 따라서 문어체적이다.

(8) a. It's winter, for the wind is cold.

b. *It's winter, because the wind is cold.

여기서 (8b)가 비문법적인 것은 찬바람이 불기때문에 겨울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for는 because와 달리 문두에 오지 못하는 문체적 특성이 있다.

(9) a. *For he loved her, he married her.

b. Because he loved her, he married her.

2.1.2. 종속접속사

영어의 종속 접속사는 아주 많지만 특기할만한 한가지만 언급해 보자.

(10) a. Did you know that John agreed?

b. Did you know whether John agreed?

종속접속사 that를 쓴 (10a)는 John이 agree한 사실을 물어보는 경우인데 반하여 (10b)는 agree했는지 안했는지를 물어보는 중립적인 질문이다.

2.2. 조동사

여기서도 앞절과 마찬가지로 조동사의 제용법을 열거하지 않고 흔히 잘못알고 있을 수 있는것 만을 기술한다. 전통영문법상의 조동사는 의문문·부정문의 do, 진행형·수동태의 be, 완료형의 have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can(could), may(might), must, will(would), shall(should), ought to 등의 소위 법조동사(法助動詞, modal auxiliary verb)만을 조동사의 개념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2.2.1 Can

2.2.1.1. 능력

주어의 능력을 기술한다.

(11) She can make her own dress.

2.2.1.2. 허가

상대방의 허가를 얻는 표현에 쓰인다.

(12) a. Can I have more information about your product?

b. May I have more information about your product?

허가를 나타내는 can과 may중 can은 일상체, may는 격식체에 각각 사용되므로 무역영어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조회할때 Can--보다는 May--로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다.

2.2.1.3. 가능성

(13) Anyone can make mistakes.

can은 주어의 능력에 따른 가능성을 나타낸다. may의 경우도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양자는 의미적으로 구별이 된다. 즉 can은 이론상의 가능성을 may는 사실상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4) a. The road may be blocked. (그 도로는 폐쇄될는지 모른다.)

= It is possible that the road will be blocked.

b. The road can be blocked. (그 도로는 폐쇄할 수도 있다.)

= It is possible for the road to be blocked.

(14a)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인데 반하여 (14b)는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것이다. 다음 예문은 구별을 더욱 명확히 하여준다.

(15) a. A company can betray you.

b. A company may betray you.

(15b)는 (15a)와 달리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의문문과 부정문에서 can은 사실상의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문 또는 부정이 된다.

(16) a. Can the news be true?

b. The news can't be true.

2.2.2 Could

Could는 can 보다 더 부드럽거나 정중한 부탁을 하는데 사용된다.

(17) Could you come and see me tomorrow?

부탁의 경우 Would you -- 보다 Could you 보다 더 정중한 표현이다. 따라서 무역영어의 사용

시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할 때 특히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18) a. Could you wait for an hour?

b. Would you wait for an hour?

Could는 일이 실제로 일어남 (actuality)를 함의하지 않는다.

(19) a. He could passed the test.

b. He actually passed the test.

즉, (19a) 와 (19b)는 의미가 다른 문장들이다. 그러나 could가 actuality를 내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20) a. 부정문에서: I could not passed the exam.

b. 주어의 일반적 능력: She could sing like an angel when was a girl.

c. 습관 또는 반복된 동작: Whenever I ran fast I could catch the bus.

2.2.3 May

2.2.3.1. 허가

May는 청자로부터의 허가를 구하거나 화자의 허가를 의미하는데 쓰인다.

(21) a. May I use your typewriter?

b. Yes, you may.

c. No, you may not.

허가의 부정은 여러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표현들은 문체상의 차이가 있다.

(22) a. must not (금지): You must not smoke here.

b. cannot(일상체): You cannot smoke here.

c. may not(격식체): You may not smoke here.

또한 may를 쓴 표현은 일반적으로 격식을 갖춘 의미를 가짐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무영영어에서 may는 “법적 강제력을 갖추는 권리”를 의미한다.

2.2.3.2. 불확실한 추측과 가능성

(23) You'd better take an umbrella with you. It may rain before evening.

May가 상태동사와 쓰이면 현재에 대한 추측이고 동작동사와 쓰이면 미래의 추측이 된다.

(24) a. He may know the answer. (현재)

b. He may leave here. (미래)

2.2.3.3. May 와 Can의 차이(허가)

May는 평서문의 경우 화자가 내리는 허락을, 의문문의 경우 청자의 허가를 구하는 문장이 되는데 can의 경우는 상황에 의한 허락을 뜻하게 된다.

(25) a. You may smoke here.

b. You can smoke here.

즉 (25a)는 화자인 내가 허락을 내리는 경우이고 (25b)는 흡연실같은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표현이다.

2.2.4 MIGHT

Might는 may보다 더 확실하지 않은 추측을 나타내며 may보다 완곡하고 조심스러운 표현이 된다.

(26) a. What you said might be true.

b. What you said may be true.

참고로 확실성을 기준으로 하여 조동사들을 순서대로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이 된다.

(27) The contract might be true.

may

could

can

should

ought to

would

will

must

즉 계약이 사실일 가능성은 might를 쓴 문장이 가장 낮고 must를 쓴 문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2.5. Must

Must는 일반적으로 의무·필연성·확실한 추측 등을 나타낸다. 그러나 무역영어에서는 shall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8) You must come earlier tomorrow.

때로 “언짢음과 공교로움”을 뜻할 수도 있다.

(29) Just as the situation was getting better, what must we do but fail to ship products?

2.2.5.1. must와 have to

의무를 나타내는 경우 must는 화자에게 권한이 있고 have to는 권한이 특정인에게 있지 않다.

- (30) a. You must send us your product package. (= I am telling you.)
 b. You have to save money to buy a house. (= This is the general rule.)

논리적 필연의 경우 have to가 must보다 훨씬 의미가 강하다.

- (31) a. Someone has (get) to be telling lies.
 (= "It's impossible for everyone to be telling the truth.")
 b. Someone must be telling lies.

must not은 금지를 나타내며 don't have to는 need not을 의미한다.

- (32) You don't have to come.

2.2.6 Must/Ought to/Should

must/have to는 logical(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의무와 필연을 나타내고 should/ought to는 moral(도의적인) 의무와 필연을 나타낸다.

- (33) I *must write a letter to New York, but I am not going to.
 *have to
 ought to
 should

(33)에서 must나 have to가 쓰일 수 없는 것은 내가 New York에 편지를 쓰는 것이 싫다고 하여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should는 ought to보다 더 강한 도의적 의무를 나타낸다.

- (34) A: Does he have to agree?
 B: No, he doesn't, but he should. In fact, he ought to do it now.

2.2.7. Will

(주어의) 자발적 의사/고집/의도 등을 나타낸다.

- (35) a. George will help you.
 b. I will have my own way.
 c. I will write as soon as I can.

그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

- (36) a. 추측: The game will be finished by now.

b. 주어의 특성: Oil will float on water.

c. 가벼운 명령: All staff will leave the buiding at once.

특히 계약에서 사용되는 will은 shall과 비교하여 볼 때 정도는 약하지만 “계약에 입각한 법적의무”를 표시한다.

2.2.8. Would

정중한 부탁 또는 의뢰를 나타낸다.

(37) Would you tell me the time, please?

기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

(38) a. 고집: He would not tell us where the money was hidden.

b. 소망: I would ask you to reconsider your decision.

c. 과거에 반복된 동작: Every morning he would go for a walk.

d. 가능성, 추측: i. That would be a milkman, (probably).

ii. That will be a milkman, (I expect).

(38di)는 (38dii)보다 확실성이 덜한 경우에 사용된다.

2.2.9. Shall

Shall은 격식체에서 1인칭을 주어로 하여 단순미래로 사용되며 일상체에서는 will이 사용된다 (39a). 그러나 영문계약서 등에서의 shall은 “강제성을 띤 의무”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39b).

(39) a. We shall be grateful if you would introduce to us some reliable importers.

b. A claim shall not exceed \$500.

또한 제3자 (즉 주어)의 행위를 통제 지배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일상적으로 흔히 쓰이지 않는다.

(40) He shall be punished. (= I will punish him.)

법규 또는 규정에 널리 쓰인다.

(41) "A" shall deliver the goods to "B" on July 30.

Shall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법은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의문문이다.

(42) Shall I deliver the goods to you on July 30?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대한 질문임과 동시에 너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2.2.10. Should

도덕적인 의무 혹은 당연을 나타낸다.

(43) You should do as you said before.

Should/ought to + have + p.p은 실현되지 않은 사실을 나타낸다.

(44) Your appliation is too late. You should/ougut to have subumitted it by March 31.

기타 다음과 같은 의미들을 갖는다.

(45) a. 논리적인 추측/가능성: They should be delivered now.

b. 가정: i. If you see him, give him my best regards. (그를 만나거든 ...)

ii. If you should see him, give him my best regards. (그를 혹시 만나거든 ...)

c. 말하는 이의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

i. I am surprised that your goods should have been so superior.

ii. I am surprised that your goods were so superior.

(45ci)는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표현으로 “당신네 상품이 그렇게 좋은 줄은 몰랐다.”는 뜻이며

(45cii)는 “당신네 상품이 좋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몰랐다는 표현이 된다.

다음의 예문에서 should는 주관을 내세우지 않는 조심스러운 의견 표명이 된다.

(46) I should think so.

2.2.11. Used to

과거에 계속되었던 상태 (상태의 계속)이나 동작의 반복을 뜻한다.

(47) a. You used to provide a best quality software.

특히 과거의 의미를 현재와 대조시켜 표현한다.

(48) a. I liked her.

b. I used to liked her.

(48b)는 “지금은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 강하다.

2.2.11.1. Used to 와 Would

Would는 반복이 가능한 동사들과만 결합한다.

(49) We used to/*would be interested in purchasing your product.

또한 Would 의 주어는 생명체이어야 한다.

(50) A tall building used to/would stand here.

Would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은 동작의 반복을 뜻한다.

(51) They used to made a frequent deal when they met, and now and then they would exchange a word or two.

Used to는 상대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반복된 동작이나 계속된 상태를 뜻한다.

(52) We used to live in Pusan *for ten years/before 1970.

2.3. 부사

부사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의미를 장식해 주는 요소로서 문장의 아무 위치에나 올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부사에 따라 그 위치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같은 부사라도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음의 예는 부사가 나타날 수 있는 위치가 부사마다 다름을 보여준다.

(53) a. *Completely I don't agree.

b. I don't completley agree.

c. I don't agree completely.

(54) a. *Very much I like your goods.

b. I very much like your goods.

c. I like your goods very much.

(55) a. *Frugally they live.

b. *They frugally live.

c. They live frugally.

동사와 목적어사이에 부사가 들어 가는 것은 문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56) They recovered yesterday the stolen goods.

Well이 동작동사 동사 앞에 쓰이면 문법적이지만 동작동사의 경우는 언제나 문미에서 사용된다.

(57) a. They supply parts well.

b. *They well supply parts.

c. We remember you well.

d. We well remember you.

같은 부사가 위치에 따라서 의미와 용법을 달리하는 경우를 보자.

(58) a. We answered the question foolishly.

b. Foolishly, we answered the question.

(58a)는 “대답하는 방법이 바보같았다.”는 의미로 foolishly가 양태부사로 쓰였으며 (58b)에서는 문장부사로 쓰여 “대답한 것이 바보스러운 것이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문장도 가능한 것이다.

(59) Wisely, he answerd the question foolishly.

시간부사와 장소부사는 규모가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의 순으로 사용된다.

(60) a. I landed in America at 6 in the morning on the 25 of June,1993.

b. Many people eat in restaurants in London.

시간부사와 장소부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 시간부사가 장소부사에 선행한다.

Foolishly, wisely, cleverly, rightly, wrongly, justly와 같은 부사는 문중에 쓰이면 주어지향부사로써 주의를 요한다.

(62) a. John seduced Mary intentionally.

b. John intentionally seduced Mary.

즉 (62a)는 Mary가 의도적으로 유혹을 유도했다는 뜻인 반면에 (62b)는 John이 의도적으로 Mary를 유혹했다는 뜻이 된다.

(63) a. Mary was seduced intentionally by John.

b. Mary intentionally was seduced by John.

(63a)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Mary가 의도적으로 유혹을 유도했다는 뜻이 된다.

강화부사 (rather, fairly 등)도 다음과 같은 것을 특별히 유의하자. 즉 fairly는 바람직한 부사나 형용사하고만 어울린다.

(64) a. I'm feeling rather/*fairly depressed with your goods.

b. "A" is faily clear, but "B" is rather stupid.

c. This soup is rather/fairly hot.

참고로 강화부사를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65) not nice < fairly nice < quite nice < pretty/rather nice < very nice

2.4. 시제표현

2.4.1. 현재시제

현재시제는 분명치 않은 과거에서 시작하여 현재를 지나 분명치 않은 미래로의 시간적 경과 속에서 나타나는 상태나 동작을 표현한다.

(66) * We made TV since 1958.

(66)이 비문법적인 것은 과거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시제는 현재진행시제와 의미가 상당히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67) a. He lives in Pusan.

b. He is living in Pusan.

(67a)는 거주지가 부산이라는 사실의 기술이며 (67b)는 당분간 부산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이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시제가 미래를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현재와 같은 확실성을 갖는 경우 가능하다.

(68) Tomorrow is Thursday.

전달동사 (verb of communication)는 보통 현재시제로 쓰인다.

(70) I understand/hear that it's going to be shipped sooner or later.

2.4.2. 과거시제

현재와 관련이 없는 과거의 사실을 기술하는데 사용된다.

(71) He lived in Pusan for 10 years.

위 문장은 지금은 부산에 살고 있지 않다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한다. 또한 화자의 '자상한 고려'를 나타내는 정중한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72) A: Did you want me?

B: Yes, I hoped you would give me a hand.

결국 화자의 관점의 차이가 중요하다.

(73) a. Brahms is the last great representative of German classicism.

b. Brahms was the last great representative of German classicism.

위 두 문장의 차이는 화자가 Brahms의 음악을 지금도 살아있는 감동을 주느냐 혹은 과거의 업적으로 평가하느냐의 관점의 차이인 것이다.

2.4.3. 미래표현

문법적으로 미래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래를 나타내는 여러가지 표현이 있을 뿐인데 여기서는 다음의 5가지 표현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74) a. will/shall + 원형

b. be going to

c. 현재진행 (be + ing)

d. 미래진행(will/shall + be + ing)

e. 현재시제

2.4.3.1 will/shall + 원형

가장 일반적인 미래표현으로 미래에 관점을 둔 예측을 나타낸다. 이는 아래의 be going to 즉 현재에 관점을 둔 예측과 대조된다.

(75) Our goods will be shipped tomorrow.

2.4.3.2 be going to

현재에 관점을 둔 예측을 나타낸다. 이는 유생주어를 쓴 경우는 현재의 의도를 나타내고 무생주어를 쓴 경우는 현재의 원인과 징후를 나타낸다.

(76) a. 현재의 의도: We are going to send you a sample sooner or later.

b. 현재의 원인과 징후: There's going to be a storm in a minute.

(76b)의 경우는 하늘에 먹구름이 모인 경우 아주 잘어울리는 표현이라고 보겠다.

또한 이 표현은 현재에 관점이 있으므로 미래지향적인 부사적 표현인 if 절과는 안쓰인다.

(77) ?We are going to sell our goods, if you ask us.

또 하나의 차이를 대조시켜 보자.

(78) Don't sit on that rock.

a. It'll fall.

b. It's going to fall.

(78b)의 문장이 “앉지 않아도 바위가 굴러 떨어지겠다”는 뜻이라면 (78a)는 “앉으면 바위가 떨어지겠다”는 뜻이 된다.

2.3.3.3 현재진행

현재진행형은 어떤일이 일어나게끔 현재 준비가 다 마련되어 있음, 즉 확정된 계획(fixed arrangement, plan or program)을 뜻한다.

(79) We're leaving today.

다음의 차이를 비교해 보자.

(80) a. We are going to ship goods.

b. We are shipping goods.

(80a)가 선적을 앞으로 하겠다는 의도의 표현이라면 (80b)는 선적장소의 예약이라든가 하는 준비가 끝났다는 표현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은 비문법적인데 이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은 자연현상은 인위적으로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81) * The sun is rising at 5 o'clock.

2.4.3.4. 미래진행

이는 특정인의 의지 또는 의도와 무관하게 당연히 일어날 미래(future as a matter of course)를 뜻한다.

(82) The goods will be arriving at eight o'clock.

2.4.3.5. 현재시제

현재시제가 미래의 의미로 쓰일 때는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확고부동한 사실을 의미한다.

(83) Tomorrow is Saturday.

2.4.3.6. 기타

Be about to는 아주 가까운 미래를 뜻한다.

(84) The president is about to make an important announcement.

Be to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격식체 표현이다.

(85) The Prime Minister is to speak on TV tonight.

2.4.4. 진행상

진행상이 갖는 기본적인 의미는 다음 세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86) a. 계속되는 동작이나 상태: We are producing computer softwares.

b. 한정된 기간 동안의 계속: She is being kind.

c. 불완전성: I was reading from 10 to 11.

위의 표현들은 각각 다음의 문장들과 대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87) a. We produce computer softwares.

b. She is being kind.

c. I read from 10 to 11.

(86a)가 지금은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지만 언젠가라도 업종 변경을 할 수있다는 것을 함의한다면 (87a)에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없으며, (86a)가 그녀의 일시적이고 의도적인 친절함을 기술한다면 (87b)는 그녀의 성품을 기술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또한 (86c)가 11시 이후에도 독서가 진행 중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면 (87c)는 독서가 10시에 시작하여 11시에 끝났음을 함의한다고 보겠다.

진행형이 always, forever, continually등의 계속을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쓰인다면 불만, 못마땅

등의 감정이 개입된 표현이 된다.

- (88) a. The bucket leaks.
 b. The bucket is leaking.
 c. The bucket is always leaking.

또한 순간동사(momentaneous verb)와 함께 쓰여 반복을 의미한다.

- (89) a. He knocked the door.
 b. He was knocking the door.

(86a)가 문을 한번 노크한 상황을 기술한다면 (89b)는 문을 반복적으로 여러차례 노크한 것을 기술하는 것이다.

상태동사는 일반적으로 진행형을 만들지 못한다. 여기서 상태동사라 함은 비자의적 지각동사(hear, see, 등), 비자의적 인식동사(know, believe 등), 소유 존재동사(belong, have 등), 감각관련 동사(feel, smell, 등)등의 동사들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진행형을 쓸 수 없는 상태동사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진행형을 쓸 수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동작(일시적, 미완성)의 의미가 있는 동사로 의미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겠다.

- (90) a. I think they're coming.
 b. I am thinking about what you said. (= I am considering - .)

- (91) a. I have a lot of thing to do.
 b. We're having a difficulty. (= We are suffering from - .)

hope, want, wonder 등의 상태동사는 원래 진행형을 만들지 못하지만 진행형을 만들어 일시성을 나타내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정중하고 공손한 표현이 된다.

- (92) We are hoping you will give us some advice.

(92)를 과거진행형으로 쓰면 이중적으로 자신을 유보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더욱 공손한 표현이된다. 이는 특히 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를 전제로 한다는 의미가 함축된다.

- (93) We were hoping you would look after our inquiry of your products.

2.4.5. 완료상

현재완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주요 용법을 갖는다.

- (94) a. 현재까지의 상태: We've lived in London since last Sempember.
 b. 현재까지에서의 경험: Have been to Amecrica?
 c. 현재까지의 상태나 동작의 계속: Mr.Phillips has assisted us in arranging this meeting before July 30.
 d. 과거의 동작, 상태가 현재에 미치고 있는 결과: The goods has arrived.

(i.e., The goods is now here.)

기타 몇가지 주의할 용법들을 생각해 보자. 현재완료는 명백히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95) We have received your letter this morning.

편지를 받은 것도 오전이고 (95)를 말한 것도 오전이라면 (95)는 옳은 문장이 된다. 대조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장은 편지를 받은 것은 오전이라면 말한 것은 오후인 경우에 맞는 표현이라 보겠다.

(96) We received your letter this morning.

현재와 관계있는 부사 즉, just, now yet, already 등과는 잘 어울리지만 just now 와 같은 부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97) a. He returned home just now.

b. *He has just now returned home.

다음의 문장을 생각해 보자.

(98) a. Your goods has been good.

b. Your goods was good.

(98b)의 경우 귀사의 제품이 지금은 좋지 않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나 (98a)의 경우는 귀사의 제품이 지금도 품질이 좋다는 것을 기술할 수도 있다.

일상체에서 “경험”의 현재완료는 특히 미국영어에서 과거시제로 대치하여 쓸 수 있다.

(99) Did you ever hear (= Have you ever heard) such a strange story?

2.4.6. 현재완료진행

이 시제표현은 계속의 강조가 된다.

(100) a. Who has eaten my porridge?

b. Who has been eating my porridge?

(100a)가 다 먹어치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면 (100b)는 아직 조금 남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2.4.7. 과거완료

어떤 과거를 시점으로하여 그때까지의 완료, 결과, 경험, 계속을 나타낸다.

(101) a. The house had been empty for ages.

b. Had they been to America before?

c. Mr. Phillips had preached in that church for 20 years.

d. The player had injured his leg and he couldn't play.

as soon as 의 구문에서는 과거가 쓰이지만 no sooner - than 의 표현에서는 과거완료가 쓰인다.

(102) a. As soon as we saw the samples, we made a contract.

b. No sooner had we seen the samples, than they made a contract.

소망동사 (expect, hope, intend, mean 등)가 과거완료로 쓰이면 이루지 못한 사실을 의미한다.

(103) I had hoped to catch the 8:00 train, but found it gone.

(= I hoped to have caught the 8:00 train, but found it gone.)

2.5. 관사

관사는 우리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품사이므로 한국인으로서 가장 틀리기 쉬운 부분이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이의 정확한 숙지와 사용은 혼란없는 어의의 전달에 필수적이라고 보겠다.

2.5.1. 부정관사의 주요 용법

처음으로 화제에 오르는 명사 앞에 붙는다.

(104) A friend came to see me yesterday. (= A certain friend -)

부정관사가 갖는 정보는 청자에게는 전혀 배경적 지식이 주어지지 않은 신정보(new information)이지만 정관사가 갖는 정보는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고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므로 구정보(old information)가 된다.

부정관사와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등이 같이 쓰이면 셀 수 없는 명사들이 셀 수 있는 명사가 된다.

(105) a. He wants to be an Edison. (Edison같은 사람 과학자)

b. Whiskey is a strong drink. (주류)

c. Temperance is a virtue. (미덕의 종류, 실례, 행위 등)

d. I had a pain in the knee. (부분적인 아픔)

e. The baby cried with pain. (전반적인 통증)

여기서 (105a)의 pain은 셀 수 없는 추상명사로서 쓰였음을 비교할 수 있다.

2.5.2. 정관사의 주요 용법

이미 나온 명사를 받으므로 구정보를 지닌다. 또한 전치사구 등으로 한정될때 사용된다.

(106) a. My office is the room on your left.

b. My office is a room on your left.

(106a)는 좌측에 방이 하나 뿐인 경우에 (106b)의 경우 좌측에 방이 여러개 있는 경우 쓰일 수 있

다. 또한 문맥 상황으로 보아 한정될 때(즉, exophoric (외계조용적)일 때) 사용된다.

(107) I'll meet you in Seoul, or in Seattle.

next week이 금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음 주라면 the next week은 금주가 아닌 다른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음 주를 뜻한다.

(108) a. I will see you next week.

b. We hoped to see you the next week.

총칭적인 표현을 비교해 보자.

(109) a. The cat can see in the dark.

b. A cat can see in the dark.

c. Cats can see in the dark.

(109a)는 추상성이 강한 표현이라면 (109c)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며 (109b)는 전문적인 논문 등에서 흔히 나타나는 표현이다. 총칭적 표현의 특성상 복수적 총칭을 제외하고는 일시적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과 쓰일 수 없다.

(110) a. Lions are disappearing in the world.

b. *A lion is disappearing in the world.

c. *The lion is disappearing in the world.

2.5.3. 무관사

불가산 명사 (물질, 추상, 고유명사)와 복수 보통명사에는 일반적으로 관사가 붙지 않는다. 그러나 보통단수명사의 경우 의미상 초점이 단어 자체와 관련되므로 관사가 있는 표현과 의미차이를 보인다. 관사가 중간에 있으면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111) a. go to school vs. go to the school

b. at table vs. at the table

c. play (the) piano vs. play the flute

즉 (111a)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다와 학교에 다른 볼일로 가다의 차이이고 (111b)는 식사중과 식사 외 다른일로 탁자앞에 앉아서의 차이이며 (111c)는 우리와 친숙한 악기와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악기와의 차이이다.

2.6. 가정법과 직설법

가정법은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의 표현이다.

(112) a. If you meet me, you will trust me.

b. If you met me, you would trust me.

즉, (112b)는 실제로는 당신이 나를 만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Should와 were to는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일에 사용된다.

(113) a.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I will not change my mind.

b. If you should change your mind, no one would blame you.

다음의 예도 재미있는 대조가 된다.

(114) a. Tom writes as if he is left-handed.

b. Tom writes as if he were left-handed.

(114a)는 실제로 왼손잡이임을 기술하는 반면에 (114b)는 실제로 오른손잡이를 기술한다.

가정법 현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사용된다. 첫째, demand, require, move, insist, suggest, ask 등의 동사와 necessary, important, desirable 등의 형용사 다음의 종속절에 쓰인다.

(115) We demanded that you give us the necessary information. (미국영어에서는

오히려 should 를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116) a. He insisted that she did not smoke.

b. He insisted that she not smoke.

(116a)는 그녀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하는 주장을 펴는 것인 반면에 (116b)는 그녀가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고하는 주장이다.

둘째, 감정동사 regret, deplore, prefer 등의 종속절에서도 가정법현재가 사용된다.

(117) a. I regret that you (should) worry about it.

b. I regret that you worries about it.

(117a)는 당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걱정을 한다는 뜻이고 (117b)는 당신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다.

셋째, 고어체에서 사용된다.

(118) If this condition be agreeable, we would like to accept your offer.

2.7. 수동태와 능동태

2.7.1. 수동태를 사용하는 경우

영어에는 화자 청자가 공히 알고 있는 구정보는 어순상 앞자리를 차지하고 신정보일수록 뒷자리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 능동태에서는 주어 또는 동작주가 구정보이고 수동태에서는 목적어가

구정부가 된다.

(119) a. Mr. Smith donated the first prize.

구 신

b. The first prize was donated by Mr. Smith.

구 신

즉 (119a)는 (120a)에 대한 대답이라면 (120b)는 (119b)에 대한 대답이된다.

(120) a. What did Mr. Smith donate?

b. Who was the first prize donate by?

수동태는 또한 동작주가 불분명하여 밝히기 어려울때 널리 사용된다.

(121) The summons and complaint were served on January 18.

특히 공적인 논문 또는 문기 등에서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흔히 사용된다.

(122) Enough has been said of the subject.

문체상의 배려로 수동태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123) He spoke and was applauded by the audience.

그러나 무역통신문의 작성에서는 능동형에 비해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고 의미가 명료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수동형의 문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

2.7.2. 제약

상태동사는 수동태로 사용할 수 없다.

(124) a. They have a nice house.

b. This dress becomes her.

채귀대명사 또는 상호대명사는 주어로 쓰일 수 없다.

(125) a. *Himself could be seen in Seoul.

b. *Each other could hardly be seen in Seoul.

부정사 및 동명사도 주어로 쓰일 수 없다.

(126) a. *To make a contract with you was hoped (by us).

b. *Making a contract with you was enjoyed (by us).

2.7.3. 의미차이

주제어와 관련하여 수동문과 능동문은 의미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127) a. John can't teach Mary.

b. Mary can't be taught.

(127a)는 John이 무능하다는 뜻이고 (127b)는 Mary가 무능하다는 뜻이 된다.

부정어의 의미영역과 관련하여 수동문과 능동문은 의미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128) a. The quality didn't cause the collapse of the contract.

b. The collapse of the contract was not caused by the quality.

(128a)는 결국 계약파기가 없었다는 뜻인 반면 (128b)는 계약파기가 일어났으나 그것이 제품의 질로 인한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양화적 표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의미차이도 생각할 수 있다.

(129) a. Three hunters shot two deer.

b. Two deer were shot by three hunters.

(129a)는 2마리의 사슴이 잡혔다는 뜻이라면 (129b)는 모두 6마리의 사슴 (2 x 3)이 잡혔다는 뜻이 된다.

2.7.4. 동사적 수동태와 형용사적 수동태

very, rather, quite 등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 동사적 수동태이다.

(130) a. We are very interested in your product.

b. *She is very loved by her husband.

by가 아닌 다른 전치사 (about, at, in, of, to, with 등)는 형용사적 수동문과 함께 쓰일 수 있다.

(131) I was surprised at/by his behavior.

by가 쓰인다면 그것은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런 감정을 유발한 원인을 분명히 하고자 할 때를 의미한다.

(132) a. He was (*immediately) surrounded with many people.

b. He was immediately surrounded by many people.

(132a)는 상태 즉 둘러 쌓여있다는 뜻이라면 (132b)는 동작 즉 둘러 쌓여졌다라는 뜻이 된다.

2.8. 전치사

일반적으로 전치사는 그것이 지배하는 목적어와 같이 붙어 있어야 하지만 현대영어의 경우에는 그들이 서로 분리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문체적 차이가 나타난다.

(133) a. Which house is he staying at? (일상체)

b. At which house is he staying? (격식체)

다음은 전치사의 주요 용법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

2.8.1. 제용법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 at, on, in은 각각 이 순서로 규모가 커진다.

- (134) a. at the door
- b. on the ground
- c. in Korea

또한 on은 평면적, in은 공간적 개념이다.

- (135) a. The players were practising on the field. (평면적)
- b. The cows were grazing in the field. (공간적)

- (136) a. on the boat
- b. in the boat

마찬가지로 (136a)는 갑판이 있는 큰 배의 경우라면 (136b)의 경우는 작은 공간 속에 들어 가는 배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보겠다.

- (137) a. I arrived in Seoul.
- b. I arrived at Seoul.

(137b)는 서울이라는 넓은 지역 (서울이라는 도시)에의 도착이라면 (137b)는 지도 상의 한 점 (서울역이나 터미널)에의 도착을 뜻한다.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들을 살펴보면 그 관계는 (138)과 같다.

- (138) above
- over/ above
-
- under/below
- below

다음 예문을 통해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 (139) a. The bedroom is above the kitchen.
- b. The bedroom is over the kitchen.

(139a)가 그저 위에 위치한다는 뜻이라면 (139b)는 바로 위에 그것도 같은 면적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

- (140) a. She put the letter under the pillow.
- b.*She put the letter below the pillow.

(140b)가 비문법적인 것은 below가 바로 밑을 뜻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접을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서 by, close to는 near (to) 보다 더 근접된 경우를 뜻한다.

- (141) a. We live by the store.

b. We live near the store.

(141a)가 가게 바로 옆이라면 (141b)는 그보다는 먼거리를 뜻한다.

(142) a. He sat on the left of me.

b. He sat to the left of me.

(142a)가 바로 왼쪽을 뜻한다면 (142b)는 그저 방향만을 제시할 뿐이다.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중 at, on, in은 기술된 순서로 규모가 커진다.

(143) a. at 10 o'clock

b. on Monday

c. in August

"까지"를 뜻하는 by와 till은 전자가 기한을 뜻한다면 후자는 "그때까지의 계속"을 뜻한다.

(144) a. The guests arrived *by 5.

The guests arrived till 5.

b. John arrived by 5.

John arrived *till 5.

c. John did not arrive *by 5.

John did not arrive till 5.

(144a)에서 by가 쓰일 수 없는 것은 손님들이 5시에 동시에 입장한다는 상황은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144b)에서 till이 쓰일 수 없는 것은 John이 도착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44c)에서 till이 쓰일 수 있는 것은 도착하지 않은 상태는 지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정 또는 완료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 for는 기간을 in은 일을 끝마치는데 들었던 시간을 뜻한다.

(145) a. He solved problems for two hours.

b. He solved problems in two hours.

(145a)는 (145b)와 달리 문제를 다풀지 못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146) a.* He finished his work for two hours.

b. He finished his work in two hours.

(146a)가 비문법적인 것은 끝냈다는 의미의 동사와 단순히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의미적으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주제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 about는 on보다 비전문적인 경우를 뜻한다.

(147) a. a book about computer

b. a book on computer

(147b)가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면 (147a)는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된다.

소속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생각해 보자.

(148) a. the door of the room

b. the door to the room

(148a)의 the door는 방의 일부가 되는데 반하여 (148b)의 the door는 빙으로 통하는 문을 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149b)가 어색한 것도 설명될 수 있다.

(149) a. a gate to success

b. ?a gate of success

즉 성공의 일부로서 문이 존재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표 또는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150) a. He shot at her but missed.

b. *He shot at her and killed her.

(150b)가 비문법적인 것은 at가 단순히 방향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문장에서는 at가 없는 경우 총을 쏘아 맞추었다는 의미가 되므로 문장의 뒷부분에 오는 말이 어색하다.

(151) *He shot her, but missed.

(152) a. He ran to the door.

b. He ran for the door.

(152)의 두문장의 차이는 전자가 문에 이르렀다는 뜻을 갖는다면 후자는 향해서 돌진했다는 뜻을 갖는다. 특히 for는 출발지 지향적인 전치사로서 목적지 지향적인 to와 대조된다.

(153) a. When shall we leave for the meeting?

b. *When shall we leave to the meeting?

수단 또는 도구를 나타내는 전치사 by와 with는 차이가 있다.

(154) a. The window was broken by a ball.

b. The window was broken with a ball.

(154a)가 행위자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154b)는 행위자를 아는 상황이다.

제외를 나타내는 표현을 생각해 보자.

(155) a. Your goods is good except for the package.

b. All the goods are good except yours.

절대적 구분은 아니지만 except for는 비교의 대상이 다를 때 사용이 되고 except는 동등한 비교를 할 때 사용이 된다.

수동태의 의미를 논할때 이미 언급이 되었지만 다른 전치사와 달리 by는 행위의 원인을 분명히

한다. 자극을 나타내는 전치사들의 경우로 이를 확인해 보자.

- (156) a. I was annoyed at the mosquitoes.
 b. I was annoyed by the mosquitoes.

(156a)가 대상을 나타낸다면 (156b)는 자극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 (157) a. I was surprised at his behavior.
 b. I was surprised by his behavior.

(157b)에는 그의 의도가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2.8.2. 전치사의 생략

전치사의 목적어가 last, next, this, that 등으로 수식을 받을 때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흔히 생략된다.

- (158) I saw him last Thursday.

물론 이러한 생략은 복원가능성 (recoverability) 즉 문맥으로 보아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 (159) a. I lived there three years.
 b. I taught him for three years.

거리를 나타내는 경우는 더욱 흔히 생략된다.

- (160) They walked (for) ten miles and rested.

2.9. 부정표현

부정표현은 이해의 정도에 따라 문장의 의미를 전혀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무역통신문의 작성 및 이해에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부정에 쓰이는 표현들은 아래의 순서로 의미가 강하다.

- (161) a. I have no friend.
 b. I do not have a friend.
 c. I don't have any friend.

2.9.1. 단정형과 비단정형

단정형(assertive form)은 긍정문에서 비단정형(non-assertive form)은 부정문 또는 의문문에서 사용된다.

(162) a. I have some money.

b. I don't have any money.

(163) a. He loves you very much.

b. He loves you *much.

(163b)가 비문인 것은 much가 비단정형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164)도 마찬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164) a. He doesn't love you much.

b. *He doesn't love you very much.

다음문장에서 (165b)에 any가 쓰인 것은 doubt의 의미가 not believe로서 not가 종속절의 위치에 서 주절의 위치로 상승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165) a. I believe she can speak some other languages.

b. I doubt if she can speak any other languages.

가정의 의미를 갖는 if 절에서는 부정문인 경우 부정 가정이 되므로 긍정형 즉 단정형이 된다.

(166) a. If we don't already won, no one would have supported us.

b. *If we don't yet won, no one would have supported us.

(166a)에서 already가 쓰일 수 있는 것은 단정형 문장 내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문장은 더욱 재미 있는 예가 된다.

(167) I don't mind some cigarette, but I do mind any hard cigar.

즉 긍정 + 단정형의 조건절과 부정 + 비단정형의 주절이 잘 어울리는 경우이다. 참고로 다음 문장에서의 some은 단정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78) I haven't read some of the books.

즉, 이 문장은 “읽지 않은 책이 몇권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2.9.2. 어순

any - not 의 순서는 인정되지만 *not - any의 순서로 된 문장은 비문법적이다.

(179) a. *John was given anything by no one.

b. *I told anyone nothing.

그러나 비록 어순상으로 뒤에 위치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상위에 위치하면 any가 not보다 앞에 위치할 수도 있다.

(180) a. Anyone who does that is not honest.

2.9.3. 부정어상승

think, suppose, believe, imagine, expect 등의 동사가 주절에 쓰인 문장의 경우 종속절의 부정어가 주절의 위치로 상승해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181) a. I think he is not honest.

b. I don't think he is honest.

위의 두문장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대조적으로 regret, know 등의 사실동사(factive verb)가 주절에 쓰인 문장은 부정어 상승이 일어난 경우 그 의미가 다르다.

(182) a. I regret that he did not do so.

b. *I don't regret that he did so.

다음의 부가의문문들을 생각해 보자.

(183) I don't suppose the OB Bears will win,

a. *do I?

b. *won't they?

c. will they?

여기서 will they가 가능한 것은 주절의 not가 원래는 종속절에 있었고 부가의문문이 종속절의 내용을 근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9.4. 부정어의 작용범위

일반적으로 부정어의 작용범위는 부정어가 있는 위치 다음부터 문미까지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184) a. I definitely did not speak to him.

b. I didn't definitely speak to him.

(184a)는 “절대로 말하지 않았다.”의 뜻인 반면에 (184b)는 “그에게 꼭 말을 한것은 아니다.” 즉, 말했다는 뜻을 갖는데 이는 부정어의 영역 속에 definitely라는 부사가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다음의 예도 재미있다.

(185) We did not give you an offer because the price of your goods was high.

이 문장은 부정어의 영역 속에 because 절이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두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거래제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반면에 또 하나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거래제의를 하지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양화사도 부정어와 의미적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낸다.

(186) a. Not many of the goods satisfied the standard.

b. Many of the goods didn't satisfy the standard.

(186a)는 문부정으로 “기준에 맞는 상품이 적다.”는 뜻이라면 (186b)는 동사구부정으로 “기준에 맞

는 상품이 많다.”는 반대의 뜻을 갖게 된다. 다음 예문은 문부정과 어부정의 차이로 볼 수 있다.

(187) a. With no labels the goods looks attractive.

b. With no labels, the goods looks attractive.

(187a)는 주어동사도치로도 알 수 있듯이 문부정문장으로 “어떤 상표가 붙여도 매력적이다.”라는 뜻이며 (187b)는 어부정으로 “상표가 없을 때 매력이 있다.”는 뜻이 된다.

All, every, each, whole, entire 등 전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always, altogether, entirely, wholly, necessarily, completely, absolutely, quite 등의 부사가 부정어와 함께 쓰이면 부분적인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

(188) a. Claim doesn't necessarily pay.

b. Claim necessarily doesn't pay.

(188a)는 부분부정으로 부정어의 영역 속에 necessarily가 들어가 있는 반면 (188b)는 전체부정으로 “클레임은 반드시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189) I wasn't listening all the time.

(189)가 전체부정의 의미로 해석되면 안들었다는 뜻이 되지만 부분부정의 의미로 해석되면 들었다는 의미가 된다

3. 화용적 분석

3.1. 언어의 사회적인 측면

언어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언어는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을 교류할 수 있도록 인간사회가 창안해 낸 고안품이다. 또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사람의 욕구가 커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안목이 높아짐에 따라 발전하고 변화한다. 한때 유행하던 표현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단어들 나타나기도 한다. 또 제한된 뜻을 지녔던 단어들 그 뜻의 범위가 줄어들기도 한다. 이런 여러가지 방법으로 언어는 변화한다. 언어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것이어서 정확하게 쓰면 미묘한 뜻의 차이를 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뜻이 애매해져서 그 뜻을 파악하는데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외국어로 상대 외국과 의사소통을 할 경우 특히 무역과 같은 국제간의 교류를 필요로 할 때에 해당언어, 예를 들어 영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대영어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오해와 거래상의 결렬을 초래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시대에 있어서는 국제적 사고, 즉 다른 문화와 그 문화권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하여야 하며, 자기 문화에만 집착하고 다른 문화를 배제하려는 사고로서는 문화

간의 이해 증진은 커녕 국제화 시대에 존속하기가 어렵다. 문화적 의미가 없는 언어적 의미는 그다지 뜻이 없는 형식적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언어란 그 언어가 속한 문화권내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나타내는 수단이므로 그 언어속에는 반드시 문화적 의미가 담겨있다. 문화적 의미는 의미론적의미와는 대조되는 개념이다. 의미론적 의미는 외연적인 의미를 가르키는데, 이것은 모든 문화가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인 의미는 문화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에서 오는 비의미론적인 양상을 나타내주는 것이지 의미론적 의미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은 대개 “어디 가십니까?” 라고 인사한다. 이 표현의 외연적인 의미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 영어는 “Where are you going?”이다. 이 두 표현이 가지는 의미의 일치는 허울 뿐이다. 이 표현들이 내포하는 문화적 의미는 현저히 다르다. 한국인의 경우, 대개 상대방의 행선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단순한 인사로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영.미인들은 그 말을 인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여겨서 구체적인 답, 이를테면 “To the library to borrow a book.” 라고 반응할 것이다. 또한 영.미인들은 한국식으로 인사하는 사람들은 비뚤어진 철학을 가졌다거나 이상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 비신사로 취급할 수도 있다. 이는 외연적인 의미는 동일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청.화자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생각이나 심상을 자아낸다는 것을 말해준다.

언어는 그것이 속한 사회집단의 생활양식, 태도, 습관과 함께 학습되고 이런 것들은 언어를 통해 표현되기 때문에 언어에 큰 영향을 준다. 미국영어에서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을 뜻하는 많은 동의어--cupcake, doll, flame, skirt, tomato, queen, broad, bag, dish, twist--가 있는데 이들 동의어들은 서열 척도에 있어 미묘한 차이를 나타낸다. 한국에서는 과거에 소가 일을 했으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비유로 “소처럼 일한다”라고 한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한국적 표현 발상의 전이에서 “He works like cattle.”이라고 표현하려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소는 일하지 않으므로 전혀 무의미한 비문이 된다. 그들은 “He works like a horse.” 라고 비유적 표현을 쓴다. 즉 두 문화간의 차이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이해가 더 어려워진다. 문화간의 이해에 장애가 예상되는 세 경우를 Lado(1968)는 첫째, 형식은 같은데 뜻이 다른 경우, 둘째, 뜻은 같고 형식이 다른 경우, 셋째, 형식과 뜻이 같은데 분포가 다른 경우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은 당연한 것이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시키는 계기로서 누구나 가지는 호기심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차안에서나, 상거래 장소에서나 사교적 모임에서 “어디 사느냐?”, “나이는 얼마나?”, “결혼 했느냐?”, “종교는 무엇이나?” 등의 질문을 쉽게 한다. 비밀을 지키려는 영.미인들은 이런 신상에 관한 질문에 대해 수상하게 여길 뿐 만 아니라 당황한다. 영.미인들은 인간적 호기심을 나타낼 권리는 예외적 특권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언어가 실제 사용되는 장면에서는 항상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사회적인 관계와 사회적 맥

락(context)이 언어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적 요인은 친족관계, 연령관계, 교육, 직업, 성, 계급 등 여러가지이다. 언어 형식의 선택이 사용의 상황에 따라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서 지배된다. 형식적 언어와 비형식적 언어사이의 차이도 사회적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 경어법이 우리말, 일본어, 자바(Java)말에 가장 뚜렷한 언어 형태로 나타난다. 다음 두 문장에서 그들이 갖는 형식성(formality)의 상대적인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다.

(1) I require your attendance to be punctual.

(2) I want you to come on time.

위 두 문장이 내용은 같지만 사회적 상황에 따라 위와같이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는 변이가능성(variability)이 있는데 이런 변이가능성을 규칙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3.2. 격식과 문체 (Registers and Styles)

우리는 주제, 청중, 담화 형식(구어 혹은 문어) 및 그 행사의 성격상의 상황에 따라 언어의 문체(styles)나 격식(registers)을 달리 쓴다. 격식은 사회적 방언이나 지역적 방언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의 변이 형태이다. 격식은 문체를 가리키며, 문체는 단일 언어 사용자의 개인 언어 내에서도 상당히 다르다. 만일 친구와 격의 없는 대화를 할 때와 앞으로 당신의 고용주가 될 사람과의 입사 면접 시험에서 쓰는 문체와는 판이하게 다른 문체를 쓰게 된다.

Martin Joos(1967)는 형식성(formality)을 기준으로 하여 문체를 가장 보편적으로 분류 했다. Joos는 5 가지 다른 형식성의 단계를 인정했는데, 각 단계는 각 기능에 맞는 다른 발화 형식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5 단계는 (1) 연설조(oratorical) 또는 동결된(frozen) 문체, (2) 신중한(deliberate) 혹은 형식적(formal) 문체, (3) 상담조(consultative) 문체, (4) 무심조(casual) 문체, (5) 친밀(intimate) 문체 등이 있다. '연설조' 문체는 청중 앞에서 공중의 장에서 말할 때 사용되며 '신중한' 문체는 대부분 전형적으로 대학 강의가 이 타입에 속한다. '상담조' 문체는 낱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하며 비교적 격식이 갖추어져 있지만 전형적인 대화에 쓰인다. 주로 사업 거래, 의사-환자 간의 대화등은 대개 상담조로 이루어진다. '무심조' 문체는 친구간, 동료간 대화에 쓰인다. 낱말 선택에 조심할 필요가 없으며 사회적인 벽이 상당히 낮다. '친밀' 문체의 특징은 사회적 억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연인들, 친한 친구, 가족간의 대화는 대개 친밀체이다.

격식의 범주는 문어체 담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문어체는 낮은 격식을 의도적으로 쓴 다정한 편지나 문학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신중한 문체이다. 즉 무역 통신문 따위는 당연히 신중한 형식적(formal) 문체를 사용해야 함이 당연하다. 많은 언어 구문의 특징은 낮은 격식에서 보다 많은 '단축형'과 '생략'을 쓴다는 점이다. 어휘 항목(lexical items)도 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Bolinger(1975)는 의미론적으로는 같은 뜻을 지니고 있으나 격식에 따라 다른 어휘 항목을 사용하여 다섯 격식을 다소 과장된 꼴로 제시하고 있다. "기민한, 유능한" 뜻을 가지고 있는 "on the ball", "smart", "intelligent", "perceptive", "astute"는 각각 친밀 문체에서 동결 문체에 이르기 까지 보여준 예다.

문화와 언어와의 상관 관계를 생각해보면 문화의 변화가 우리의 사고와 언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상품을 말할 때, 예를 들어 계란이 "small eggs"는 없고 단지 "medium", "large", "extra-large", "jumbo"만 있다고 한다. 완곡어법(euphemism)--실제 그대로가 아닌 방법으로 말하기--이 미국 문화에 풍부하여, 어떤 생각은 금기어로 되어 있고 어떤 낱말은 바람직 하지 못한 것이 함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청소부(garbage men)는 위생기사(sanitary engineers)로, 빈민굴(slums)은 비표준 거주지역(substand dwellings), 수위(janitor)는 custordian으로, die는 pass away로, 노인(old man)은 senior citizen으로 부른다.

3.3 현대 영어의 조건

좋은 글을 쓰도록 향상시키는 한가지 방법은 뜻의 전달에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지면만 차지하고 있는 군더더기 표현을 찾아서 없애버리기를 익히는 것이다. 곧 특수요어(jargon), 진부한 상투어(cliche), 완곡어법(euphemism), 유행어(vogue word), 중복어(redundancy), 둘러서 말하기(circumlocution) 따위가 그런 군말의 성격을 띄는 것 들이다. 이런 언어는 그 지나친 쓰임새와 부정확성으로 말미암아 품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고자 하는 뜻을 애매 모호하게 하고 혼란을 일으키며 잘못 전달 될 수가 있다.

군더더기 표현의 예를 들자면, 누가 "...appear to be suggestive of the possibility that ..."라고 말한다면 그는 단지 suggest 라는 뜻의 말을 하려고 불필요한 일곱개의 단어를 쓰는 셈이다. in view of the fact that는 since를, in the majority of cases는 usually를 뜻한다. 수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어에서도 두 점 사이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직선이다. 이 원칙을 염두에 둔다면 말과 글을 더욱 직접적으로 힘차게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일상 언어생활에서 가능한 한 쉬운 말을 사용하고 또한 그러한 말을 찾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욕구 때문에 우리는 언어 사용자로서 일종의 경제 전략(Strategy of Economy)을 사용하려 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무역 영어 처럼 간결함과 명료성을 필수로 하는 경우는 더우기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 된다.그 내용을 살펴보면, 반복의 회피 현상이다. 우리에게 는 일상 사용하는 문장에서 어떤 요소의 반복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을 우리는 경제 전략의 한 표출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요소의 반복은 이해도를 감소 시

키므로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그들 사이의 유사도가 높을수록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네 가지의 예를 살펴보면, 첫째로 John R. Ross(1972)에 의하면 한 문장에서 "-ing"형이 연거푸 반복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He denied that he liked going home"은 좋으나 "? He denied liking going home"은 좀 곤란하다는 말로 풀이될 수 있다. 둘째로 Charles J. Fillmore(1968)에 의하면 같은 절(clause)안에서 같은 격(case role)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John used a hatchet to chop it down with a machete."는 같은 절 안에서 도구격(instrumental case)이 반복되어 비문법적인 문장을 이루고 있다. 셋째는 "even"의 반복 제약, 즉 한 문장 안에서 "even"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John even reads even English"는 안된다. "even"이외에 "only"등의 반복도 마찬가지로이다. 넷째는 "-ly"의 반복 제약, 즉 "-ly"의 반복은 가능한 범위에서 피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He did it carefully daily"는 피해야 한다.

3.4. 영국영어와 미국영어

오늘날의 영어는 영국영어이든 미국영어이든 모두 제임스피어 시대의 영어에서 유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인과 미국인은 상대방의 영어에 대하여 일종의 편견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국인은 미국영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미국영어는 속어(slang)의 숲을 이루고 있다. 갱 영화등에서 듣게 되는 교육 받지 못한 사람의 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둘째, 미국영어에는 과장된 표현과 긴 어휘가 허다하다."

미국영어와 영국영어는 시공의 차이를 두고 발전을 거듭해 왔다. 각 영어의 방언의 형성도 서로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영어의 경우 지리적 이동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동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영어와 미국영어는 비록 철자, 발음, 어휘, 문법, 속어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해도, 의사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것은 여러 학자들의 노력의 결과와 대중 매체의 공헌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역 통신문상의 상대 국가가 미국영어를 사용하는가 영국영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상대 국가의 영어에 대응하여 의사소통을 한다면, 보다 친근감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영어의 영역을 나눠보면 미국영어(American English Family)는 미국과 Canada, 영국영어(British English Family)는 West Indies, British Isles, Australia, New Zealand, 그리고 Africa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무역 상대국가의 영어가 미국영어인지 영국영어인지를 미리 알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과 상황에 따라서 이해도를 높힐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어휘 및 발음, 철자의 문제는 제외하고 문법상의 차이만을 다루기로 한다.

3.4.1. 조동사, 동사 및 다른 표현

영국 영어	미국 영어
I shall tell you later.	shall은 미국영어에서는 공식적인 문서나 법정을 제외하고는 드물게 사용된다.
would, will을 예측에 사용 That would be the woman you want.	should, must 사용 That should be the woman you want.
When I was young, I used to go there every day.	When I was young, I would go there every day.
Have you got fresh cod? Yes, I have.	Do you have any fresh cod? Yes, I do.
I like photographing animals in the wild. It seemed a long time. He acted a real fool. Go and fix it now. He ordered the man to be evacuated. I wonder he did any work at all!	I like to photograph animals in the wild. It seemed like a long time. He acted like a real fool. Go fix it now. He ordered the man evacuated. It's a wonder that he did any work at all!
얼마전 완료된 상황에 대한 시제 사용 So you've finally arrived! All you have to do is to find a job.	So you finally arrived! All you have to do is find a job.
We feed our pigs on potatoes. I don't feel inclined to do anything.	We feed potatoes to our pigs.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3.4.2. 관사에 관련된 경우

영국 영어	미국 영어
-------	-------

to be in hospital
I saw him next day.

to be in the hospital
I saw him the next day.

3.4.3. 형용사, 부사에 관련된 경우

영국 영어	미국 영어
It is scarcely possible.	It is almost impossible.
I had scarcely any money.	I had almost no money.
It will dry off soon.	It will dry out soon.
This one is different from the last one.	This one is different than the last one.
still, yet을 단순과거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I haven't bought one yet.	I didn't buy one yet.

3.4.4. 전치사에 관련된 경우

영국 영어	미국 영어
I met him in the street.	I met him on the street.
I read two books in the train.	I read two books on the train.
The joke is against me.	The joke is on me.
She lives just round the corner.	She lives just around the corner.
She threw it out of the window.	She threw it out the window.

3.4.5. 접속사 사용의 경우

It is not so far as I thought it was.	It is not as far as I thought it was.
Try again as I do	Try again like I do.
This morning I feel as if I were a sick person.	This morning I feel like a sick person.
It was so hot that I took my coat off.	It was so hot I took my coat off.
So long as you're happy, you'll stay.	As long as you're happy, we'll stay.

3.5. 한국인들의 영어에 대한 오류 분석

외국어 학습과 모국어와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촉진(facilitation)과 방해(interference)의 두 가지 타입을 가질 수 있는데 한국어와 영어의 학습관계를 보면 구문상의 차이 때문에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오류들을 예문과 함께 살펴 보기로 한다.

한.영어 목적어 구문의 비교를 해보면 한국어에서는 흔히 명사 다음에 목적격 조사인 -을 을 부가해서 나타낸다.(a는 문법적이고 b는 비문법적임)

『...에 ...하다』로 나타나는 SVO 구문

- (3) a. He enters the classroom.
b.*He enters into the classroom.

- (4) a. Mary inhabits the island.
b.*Mary inhabits in the island.

『...와 ...하다』로 나타나는 SVO 구문

- (5) a. Jack will marry Mary.
b.*Jack will marry with Mary.

- (6) a. He will accompany a person.
b.*He will accompany with a person.

- (7) a. We discuss the problem.
b.*We discuss about the problem.

- (8) a. Does this new dress become me?
b.*Does this new dress become to me?

『일주일 후에 갈 수 있게 될 것 같다.』

- (9) a. I may be able to go in a week.
b.*I may be able to go after a week.

『당신은 그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 (10) a. Are you related to him in any way?
b.*Are you related with him any way?

『그는 살인으로 유죄가 판명됐다.』

- (11) a. He was found guilty of murder.
b.*He was found guilty for murder.

정확한 어휘 사용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잘못된 문장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누군가 그의 돈을 훔쳐 갔다.』

(12) a. Someone has stolen all his money.

b.*Someone has robbed all his money.

『간밤에 누군가가 은행을 털어갔다.』

(13) a. Some men robbed a bank last night.

b.*Some men stole a bank last night.

steal의 목적어가 돈, 시계 등 도둑이 훔친 물건 인데 반하여 rob는 목적어가 물건의 도난 당한 장소나 사람이다.

(14) a. I revenged myself for the insult.(진실에 대해 행해진 원수)

b.*I avenged myself for the insult.

(15) a. He avenged his son's murder.(약자나 남에게 가한 것에 대한 원수)

b.*He revenged his son's murder.

3.6. 무역 통신문의 화용적 문제

무역 통신문의 경향이 과거의 형식적인 문체인 문어체(written English)에서 구어체(spoken English)로 대체됨에 따라 "Write as you talk"가 무역 영어의 기조가 되었다. 또한 상대방에 따라 style도 바꾸고 상대방에 호감도 주고 상대의 의함에 영합하여 간략하고 요령있는 평이하고 회화적인 style의 서간문 작성이 발달하게 되었다. 종래에는 소위 commercial English라는 격식을 갖춘 표현들이 무역 영어로 쓰였으므로 『알려드립니다』와 같은 표현도 We beg to advise that... 나 We have the pleasure to inform you that...라는 식으로 쓰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20 세기에 들어와 1차 세계대전과 함께 미국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봉건적 계급의식이 급속히 퇴조되고 상용문에도 구어체가 폭넓게 쓰이게 되었다. 그러나 예를들어 『구매하겠다』라고 할때 We want to buy는 『구입하고 싶다』는 회화조의 영어로서는 충분하지만 좀더 의례적인 영어조로서는 We wish to purchase 라든지 We are interested in purchasing이라고 쓰는 것이 좋겠다. 무역 영어는 미사여구를 필요로 하지않고 그대신 간단하고 명료하며 정확하고 예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역 거래상 문서에 의한 communication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으나 오늘날 팩시밀리나 컴퓨터 E-메일(EM) 등으로 해서 그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서신은 기록이 되며 전화나 면담에 의한 의사소통보다는 의심과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다 신중하고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외국어의 표현에서 때로는 문화상, 관

습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이다. 특히 출장 후의 사례 편지, 초대에 대한 감사 편지, 거래상 거래 요청의 거절 편지 및 가격 교섭, 지불 교섭 등에 대한 편지는 미묘한 의미 전달이 필요하므로 문법 이외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또한 무역 통신문은 현대 무역 사회에서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출과 수입의 무역 거래에서 생기는 불유쾌한 부분도 가장 유쾌한 태도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역 통신문은 메시지를 명확하고도 인상깊게 전달 해야만 한다. 가장 불유쾌한 내용을 전달해야 할 때도 최소의 언짢음으로 내용을 전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어휘 사용이 가장 필요하다. 불필요한 정보와 설명을 피하고 plain, simple, every day English를 사용한 간결한 문장을 써야 한다.

무역 통신문에서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여 상대방에게 실례가 되지 않는 편지를 쓰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의식하면 제대로 요구도 못하는 등 무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너무 무례하게 표현 한다면 무역이 계속 지속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실례가 되지 않는 표현으로 이 쪽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영문 편지를 예로 들어 보자.

(16) Thank you for your bill of September 13. The amount of your bill is completely wrong. Please correct your mistake.

이 영문은 문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이 편지를 받은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 됐을까? 청구서를 받고 기쁘다는 표현을 쓴 것도 우습고 completely 와 wrong 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의 감정을 몹시 자극한다. 명령조의 편지를 써서는 안되므로 비록 계산이 틀렸더라도 부드럽게 정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의 거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 뻔 한 노릇이다. 같은 편지라도 다음과 같이 쓴다면 인상은 매우 달라진다.

(17) We appreciate your quick answer. The amount does not match the figure we arrived at. Our figure is \$325.30. Would you check your figure again, please?

이 편지는 제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이므로 수취인이 오히려 미안한 생각이 들 것이다. 어휘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하는 이유는 마이너스 이미지를 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플러스의 이미지를 주는 것도 있다. wrong, correct, mistake는 전자에 속하는 것이니 만큼 사용할 때는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You are wrong."이라고 해버리면 너무 강경하다고 여겨지므로 "I'm afraid you might be wrong."으로 하면 겸손한 태도를 보임으로서 상대방에게 나쁜 감정을 주지 않을 것이다.

"I cannot agree with you." 라는 말을 성급히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할 때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좋다. "I agree in general with your idea, but I would not emphasize your second point as strongly as you do." 혹은 "I would not put as much emphasis on it." 정도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잘못 사용하는 말 가운데 "You had better.."의 문장이 있다. 기계적으로 영어를 암기하여 『--하는 편이 낫다』라고 간단히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있다. 다음의 영문에서 영국인이나 미국인은 어떤 인상을 받을까?

(18) Most likely you are already in possession of the information of the product, but if you do not have, you had better write us quickly.

이 말을 한국어로 옮기면 『귀사에서는 이미 그 제품의 정보를 입수하셨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였다면 즉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가 된다. 즉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친절심에서 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역효과를 주고 있는 것이다. 친절심에서 you had better를 사용했겠으나 영미인은 다음과 같은 뜻으로 받아 들일 것이다.

(19) You must write us. If you don't write us, unfortunate results may occur.

즉 『당신은 우리 회사에 편지를 써야 한다. 만약 편지를 쓰지 않으면 불행한 결과가 일어날른지 모른다』의 의미가 되므로 의무감 내지는 협박감을 주는 결과가 되니 매우 실례되는 일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한국의 어느 메이커가 로봇트를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으로서 안전 규칙(safety rules)의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표시 했다.

- (20) a. The wearing of safety shoes is recommended.
- b. The wearing of gloves is not recommended.
- c. It is recommended that approved safety glasses should be worn.

이것은 『 a.안전화를 신는것을 제안한다 b.장갑의 착용은 제안하지 않는다. c.허가된 안전 안경을 착용할 것을 요구한다 』를 기계적으로 영역한 것이다. 한국어가 『--를 제안한다』로 되었었기 때문에 recommend를 사용한 것 같다. 그런데 뜻밖에 구입자 측으로 부터 이 영문으로는 어떻게 판단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클레임이 왔다. 안전 규칙이므로 기계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구입자 측으로 부터 (21)『조작시 사고는 폐사가 아니라 귀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가 왔으므로 다시 검토를 하게 되었다.

(21) If any accidents happen while operating the robot, you must take all the responsibility, not us.

즉 recommend는 『--를 제안한다』 이니까 『싫으면 실행하지 않아도 좋다』는 뜻이 되고 만다. 이런 규칙은 명령문을 써서 Wear safety shoes. Don't wear gloves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해야함은 무역 통신문과 마찬가지로 문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들이다. 또한 한국인은 남의 감정에 신경을 쓰는 경향 때문에 확실하게 "No"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글쎄요"하고 애매하게 말하거나 "선처하겠습니다" 정도이다. "선처하겠습니다"란 "I'll do my best, but it's likely that I'll end up being unable to comply with what you're asking for." 로서 대부분의 경우 mild no를 표현하였다. 이와는 달리 논리가 명료한 영어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막연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3.6.1. 무역 통신문에서의 어휘 선택 문제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감정적이 되지 않도록 단어 선택에 있어서 level을 같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예문 (22)를 보면 delete란 formal한 단어와 어조의 통일성을 위해 make, things란 단어 보다 render, items란 말을 사용한다.

(22) Some of the deleted items render other delivered items useless.

(23) We trust the enclosure will provide you with sufficient detail for your purposes.

(23)에서와 같이 적극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we are sure...보다는 trust가 확신의 정도가 높으며 틀림없이 그러리라는 기분이 포함되어 있다.

3.6.2. 간결하고 정중하며 부드러운 어조의 무역 통신문

소개에 대한 보고 편지는 내용은 간결하게 어조는 부드럽게 쓴다.

(24) We are now moving ahead with the preliminary arrangements.

proceed with 보다는 move ahead with를 사용하여 어조를 부드럽게 한다. "You requested it in your letter" 와 같은 문장에서 request는 가장 사무적인 느낌을 주는 말이다. 회화체로서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것은 ask for, 강한 느낌을 주는 것은 require, 더 강한 것으로는 demand가 있다.

(25) We supply parts in Ghana through Korean Electrical Trading Co.,Ltd., our sole authorized distributor for parts in your market.

자신과 상대를 함께 일컫는 we를 사용하면 일체감이 생긴다. 또한 carefully tested, right person, someone qualified 등 수식어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상대의 마음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26) Did you want to see me now ?

(27) I wondered whether you are free tomorrow.

(28) I was wondering whether you could help me.

(26),(27),(28)과 같이 현재 마음의 상태를 좀 더 조심스러운 태도로 예의있게 표현하기 위하여 과거 시제, 혹은 진행형을 사용한다.

(29) We would very much appreciate your checking this out against your records.

Please confirm..., We would like you to check..., We would very much appreciate your checking...의 순서로 정중한 표현 이다.

4. 결 론

이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규모의 무역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무역영어에 대한 의식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무역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어야할 무역통신문의 수단인 영어에 대한 문법적 및 화용적 지식이 기대보다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상대국의 문화와 관습의 차이의 이해에 기초한 언어적 표현의 정확한 구사 및 이해능력이 무역거래의 향상에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인식 및 이의 보충을 위한 교육은 특히 중소기업 수준의 무역종사자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무역영어 공부란 그저 실무를 통해 익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무역영어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영어의 표현간 의미차이와 화용적 고려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법적으로 보충되어야할 부분으로 접속사의 사용, 조동사의 사용, 부사의 사용, 시제표현 간의 의미차이, 관사의 사용, 가정법과 직설법의 차이, 수동태와 능동태의 차이, 전치사의 사용, 부정표현 간의 의미적 차이 등을 소개하였으며, 화용적으로 고려되어야할 부분으로 영어가 갖는 사회적 기능과 의미, 격식과 문체, 현대영어의 조건,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의 차이, 한국인들이 잘 범하는 오류분석, 무역통신문에서 특히 고려되어야할 화용적 문제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 연구는 물론 무역영어의 사용에 있어서 문법적으로 그리고 화용적으로 보충되어야할 부분을 기술하였지만 전반적이고 완전히 포괄적이지는 못하다. 그러나 이연구가 우리나라 무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되어 산학협동의 대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문 용 (1988) 고급영문법해설, 박영사, 서울.
- Akmajian, A., R.A. Demers and R.M. Harnish (1984) *Linguistics: An Introduction to Language and Communication*, 2nd edition, Prentice-Hall, Inc.
- Bell, R.T.(1976) *Sociolinguistics*, St.Marin's Press, New York.
- Bolinger, D.(1975) *Aspects of Language*,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New York.
- Brown, G. and G. Yule (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Brown, H. Douglas (198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rentice-Hall, Inc.
- Fillmore, C.J.(1968) 'The Case for Case' in Bach, E. and Harms, R.(eds.)
- Halliday, M.A.K. and R. Hasan (1976) *Cohesion in English*, Longman Group Ltd., London.
- Joos, M.(1967) *The Five Clocks*,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Inc.
- Lado, R. (1968) *Linguistics Across Cultures*, Univ. of Michigan Press., Ann Arbor.
- Leech, G. N. (1987) *Meaning and the English Verb*, 2nd edn, Longman, London.
- Palmer, F. R. (1979) *Modality and the English Verb*, Longman, London.
- Palmer, F. R. (1988) *The English Verb*, 2nd edn, Longman, London.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London.
- Ross, J.(1972) 'Doubling', *Linguistics Inquiry* 3:1, 61-68.
- Trudgil, P.(1984) *Applied Sociolinguistic*, Academic Press, London.
- Vania L. and J. Hintikka (1984) *Cognitive Constraints on Communication*, D.Reidel Publishing Co., London.
- Yule, G.(1985) *The Study of Language*,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부 록

설 문 지

본 설문지는 산학협동재단의 1992년도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무역통신문의 어법 정형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Usage Standardiz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level Business Correspondence)”의 완성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설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들은 중소기업 수준의 무역 통신문에서 발생하는 영어 어법상의 오류를 文法的 및 話用的 측면에서 살피고, 이를 개선하여 정형화-표준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무역거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절대적으로 무역입국 수출주도 정책 하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무역의 증진을 통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상과제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나라가 갖는 시장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게 전략을 세우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상대방과 직접 테이블상의 협상을 하는 경우가 아닌 무역 통신문의 왕래에 있어 영어의 어법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거래상 오해가 생기고 어렵게 추진되던 거래 자체가 실패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영어 표현상의 오해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은 무역거래에 있어 우선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부분임이 당연합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상대적으로 일천한 중소기업 수준의 무역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한다고 보고 연구의 범위를 중소기업의 무역거래에 맞추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입 상품의 가격경쟁력, 품질, 생산성, 운영 등 제반 여건이 아무리 성숙하다고 해도 이를 정확히 상대방에게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애써 농사를 지었지만 수확을 거두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통신문의 표현상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영어의 문법 및 어법 분야에서 도움을 받아 개선될 수 있으며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연구는 거래 제의에서 선적 통보까지 무역거래 전단계에 걸쳐 언어 소통상의 제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표현상의 문법적 오류뿐만 아니라 영어의 사회언어학적-심리언어학적 배경을 고려하지 못해 발생하는 오류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합니다.

앞으로 이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되어 완성이 된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무역거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산학협동의 대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질문에 o표하시거나 순서대로 1, 2, 3으로 표시해주세요.

I. 일반적인 사항

1. 귀사의 연간 수출입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수출 (달러)

수입 (달러)

2. 수출입의 주종 품목은 무엇입니까 ?

수출품목:

수입품목:

3. 수출입시 건당 평균 주문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1만 달러 미만

(2) 2만 달러 정도

(3) 5만 달러 정도

(3) 5만 달러 이상

4. 수출입은 주로 어느 경로를 통해 하십니까 ? (순서대로 기입요망)

(1) 중개상 ()

(2) 직접방문 ()

(3) 통신문 ()

(4) 무역상사 ()

5. 주요 교역 상대국은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 (순서대로 기입요망)

(1) 미국 ()

(2) 일본 ()

(3) 중국 ()

(4) EC ()

(5) 동남아 ()

(6) 중동 아프리카 ()

(7) 기타 ()

6. 무역 협상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기입요망)

- (1) 언어의 장벽 ()
- (2) 문화와 관습의 차이 ()
- (3) 까다로운 품질의 요구 ()
- (4) 기타 ()

II. 어법 및 표현상의 오류를 중심으로 한 설문

1. 무역통신문 작성은 주로 누가 합니까?

- (1) 실무자 ()
- (2) 중견간부 ()
- (3) 임원 ()

2. 귀사는 무역거래가 진행되던 중 거래가 중단되거나 분쟁이 야기된 사례가 있습니까?

- (1) 있다. ()
- (2) 없다. ()

3. 있다면 그러한 실패 내지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1) 무역 계약서 작성상의 오류 ()
- (2) 상대방 상거래 관습의 무지 ()
- (3) 무역영어 표현 및 어법상의 차이 ()

4. 영어 어법 및 표현상의 오류가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1) 문법적인 오류 ()
- (2) 화용적인 오류 ()

5. 영문법상의 오류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음 중 어느 것이었습니까? (가능한 한 순서대로 표기)

- (1) 시제 표현의 실수 ()
- (2) 조동사 선택의 실수 ()
- (3) 가정법과 직설법의 차이에서 온 실수 ()

- (4) 능동태와 수동태의 의미 차이에서 온 실수 ()
- (5) 관사 사용의 실수 ()
- (6) 부사의 위치의 실수 ()
- (7) 부정 표현의 의미 차이에서 발생한 실수 ()
- (8) 전치사 사용의 의미 차이에서 발생한 실수 ()
- (9) 접속사 사용의 실수 ()
- (10) 기타 문법적 실수: _____

6. 귀하께서 경험한 무역 통신문 상의 실수 가운데 문법상 오류가 아닌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 되십니까? 해당되는 문안이 없다면 간단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가능한 한 순서대로 표기)

- (1) 문화적 인식 차이에서 오는 문제 ()
- (2)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 ()
- (3) 격식과 문체상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문제 ()
- (4) 영어 구어체 의미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문제 ()
- (5) 기타 화용적 실수: _____

7. 현재 귀하는 우리나라 무역 통신문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떤 방안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문 교육기관의 설립 ()
- (2) 전문 서적 및 연구의 활성화 ()
- (3) 해외 연수 교육 ()
- (4) 영어 및 무역 통신문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 ()

8. 귀하는 무역 통신문 작성을 위한 무역 영어를 별도로 공부하고 계십니까?

- (1) 실무를 통해 공부하고 있다. ()
- (2) 전문적인 무역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
- (3) 현재는 안하고 있으나 공부할 예정이다. ()
- (4) 전혀 하고 있지 않다. ()

* 질문에 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를 동봉한 봉투에 넣어 회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거래 제의에서 선적 통보(거래 제의 서신 / 인콰이어리 서신 / 오피에 대한 회신 / 반대 오피를 수락한 서신 / 선적 통지 등)까지 그간 교신하신 관계된 무역통신문(서한문, Telex, Fax 등)을 동봉해 주십시오.(회사명이나 거래선 상호 및 주소는 삭제하셔도 무방함)

* 본 설문지에서 밝혀지는 귀사 관련 내용에 관해서는 귀사의 동의없이 외부에 공개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 연구원 명단

연구책임자: 김 선 용 (광운대학교 영문학과 조교수)

연구원: 박 덕 재 (광운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자 문: 손 태 빈 (광운대학교 무역학과 교수)